

무로우지 절

무로우산 기슭에 자리한 무로우지 절은 진언종 무로우지파의 대본산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산 속 동굴에 용의 신이 산다는 영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가뭄이 들면 천황은 사자를 파견하여 물의 신인 용신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비는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무로우지 절이 창건 이후, 이곳은 용신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절의 역사는 8 세기 후반에 병으로 고생하던 야마베 친왕(후의 간무 천황, 737~806년)을 위한 기도 의식을 이곳에서 거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황의 명령에 따라 고후쿠지 절의 고승인 젠케이(705~793년)가 최초로 건물을 세웠고, 그의 제자인 슈엔(711~835년)이 건물 여러 채를 더 지었습니다.

무로우지 절은 여성들을 위한 신앙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고야산에서는 여성의 입산이 금지되었지만, 무로우지 절은 여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부터 ‘여성들의 고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절을 찾는 참배객의 80%는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로우지 절에는 십일면관음상과 석가여래상, 금당, 오층탑 등 수많은 국보가 있으며, 녹음이 울창한 자연도 이 절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지만 특히 석남, 벚꽃, 수국, 그리고 붉게 물든 단풍이 볼 만합니다.